

8월 소비자물가는 3.1% 상승

-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.4% 상승

<'26.8월 주요 물가 지표>

(전년동월비, %)	총지수	식료품에너지제외	농산물석유류제외	생활물가지수	신선식품지수
'26.7월 → 8월	2.8 → 3.1	2.6 → 3.4	2.5 → 3.1	2.5 → 3.2	△2.3 → △6.7

'26.8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하락 및 석유류 상승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휴대전화비 반값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3.1%(7월 2.8%) 상승하며 상승세가 전월보다 확대되었다. 휴대전화비 특이요인 제외시 8월 물가상승률은 2.5%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.

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3.4%(7월 2.6%) 상승했고,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비 3.2%(7월 2.5%) 상승했다.

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△0.5%p 완화하였으며, 해당 조치가 없었을 경우 8월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.6%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.

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운영 등 석유류 가격안정과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,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「추석 민생안정대책」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.

<별첨> '26.8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양윤영 (044-215-2820)
		담당자	사무관	박창규 (ckpark0916@korea.kr)
			사무관	최규철 (kyuchul84@korea.kr)

1. 주요 내용

1 [소비자물가] 전년동월비 3.1% 상승 ('26.7월 2.8%)

(%)	'25.8	9	10	11	12	'26.1	2	3	4	5	6	7	8
전년동월비	1.7	2.1	2.4	2.4	2.3	2.0	2.0	2.2	2.6	3.1	3.2	2.8	3.1
전월비	△0.1	0.5	0.3	△0.2	0.3	0.4	0.3	0.3	0.5	0.5	0.1	△0.2	0.2

- 농축수산물 물가는 할인지원, 생산량 증가 등으로 농산물 크게 하락, 축·수산물 상승세 둔화되며 전체 △2.6% 하락(7월 0.9%)

* 전년비(%): <농산물> △2.2→△6.7 (곡물) 2.3 (채소) △9.7 (과일) △9.8 <축산물> 4.4→1.5 <수산물> 3.9→3.8

-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, 최고가격제 등으로 상승세 소폭 완화된 14.2% 상승(7월 15.5%)

* 두바이유(\$/Bbl): ('25.6) 69.3 (7) 70.9 (8) 69.4 / ('26.6) 79.5 (7) 76.8 (8) 88.8

휘발유 가격(원/리터): ('25.6) 1,642 (7) 1,668 (8) 1,666 / ('26.6) 2,005 (7) 1,882 (8) 1,863

경유 가격(원/리터): ('25.6) 1,505 (7) 1,532 (8) 1,536 / ('26.6) 1,999 (7) 1,868 (8) 1,847

- 가공식품 물가는 업계 가격인상 등으로 상승세 확대되며 1.5% 상승(7월 1.0%)

- 개인서비스는 외식제외 서비스가 소폭 둔화(4.1→4.0%)되었으나, 외식 상승세 확대(2.6→2.7%)되며 전월과 동일한 3.5% 상승(7월 3.5%)

* 전년비(%): <외식> 2.6→2.7 <외식제외> 4.1→4.0

- 공공서비스는 작년 휴대전화비 반값할인(8월 한달)에 따른 기저 효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며 6.5% 상승(7월 1.4%)

품목별 전년동월비 상승률 및 기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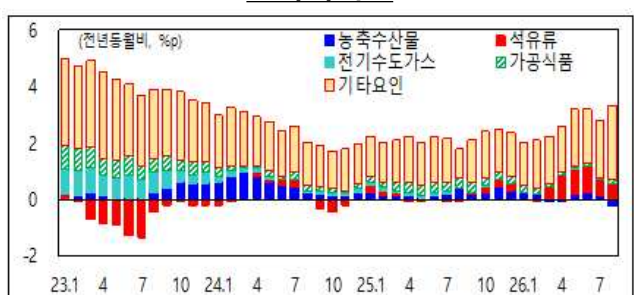
품목별	상승률(%)	전체	농 축 수산물	공업 제품	석유류	가공 식품	전기·가스 수도	집세	공공 서비스	개인 서비스	외식	외식 제외
'26.7월	전년동월비	2.8	0.9	3.7	15.5	1.0	0.4	1.1	1.4	3.5	2.6	4.1
	(기여도, %p)		0.1	1.2	0.6	0.1	0.0	0.1	0.2	1.2	0.4	0.8
'26.8월	전년동월비	3.1	△2.6	3.7	14.2	1.5	0.4	1.2	6.5	3.5	2.7	4.0
	(기여도, %p)		△0.2	1.2	0.5	0.1	0.0	0.1	0.7	1.2	0.4	0.8

소비자물가·근원물가



* 자료: 국가데이터처

물가기여도



* 자료: 국가데이터처

② [근원물가] 휴대전화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3.4% 상승('26.7월 2.6%)

*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기준 근원물가로서,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,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

(전년동월비, %)	'25.8	9	10	11	12	'26.1	2	3	4	5	6	7	8
식료품 및 에너지제외	1.3	2.0	2.2	2.0	2.0	2.0	2.3	2.2	2.2	2.5	2.5	2.6	3.4
농산물 및 석유류제외	1.9	2.4	2.5	2.3	2.3	2.3	2.5	2.3	2.2	2.5	2.4	2.5	3.1

③ [생활물가] 휴대전화비 등 식품外 상승폭 확대로 전년동월비 3.2% 상승('26.7월 2.5%)

*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

** 생활물가지수(전년동월비, % '26.7→8월): <식품> 1.6→0.8 <식품이외> 3.2→4.8

(전년동월비, %)	'25.8	9	10	11	12	'26.1	2	3	4	5	6	7	8
생활물가지수	1.5	2.5	2.5	2.9	2.8	2.2	1.8	2.3	2.9	3.3	3.4	2.5	3.2

④ [신선식품] 신선채소 등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년동월비 △6.7% 하락('26.7월 △2.3%)

* 신선어개(생선·해산물), 신선채소, 신선과실 등 계절·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

** 신선식품지수(전년동월비, % '26.7→8월): (신선어개) 4.4→4.1 (신선채소) △4.3→△9.8 (신선과실) △4.7→△10.0

(전년동월비, %)	'25.8	9	10	11	12	'26.1	2	3	4	5	6	7	8
신선식품지수	2.1	△2.5	△0.8	4.1	1.8	△0.2	△2.7	△6.6	△6.1	△1.4	0.4	△2.3	△6.7

2. 평가 및 대응

□ [평가] 8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일시적 휴대전화비 반값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며 전년동월비 3.1% 상승(7월 2.8%)

< (참고) 주요국 소비자물가 >

	한국		미국	영국	일본	OECD	EU
	'26.8월	'26.7월	'26.7월	'26.7월	'26.7월	'26.6월	'26.7월
소비자물가(% 전년동월비)	3.1	2.8	3.4	3.1	1.9	4.2	3.0

□ [대응] 「추석 민생안정대책」(9.1.) 차질없이 시행

- 할인지원, 성수품 공급확대 등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, 최고 가격 운영 등 석유류 가격안정 노력 지속